

익산시,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내년 정부반영액 6616억원... 전년比 104억원 ↑

하반기 도시재생 등 대형사업 예산 확보 기대

정부가 내년 514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익산시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6616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안 6512억원보다 10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추후 확정될 국가사업이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모사업,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사업 등이 결정되면 올해 국가 예산 6872억원을 넘겨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SOC 분야 1227억원, 농업 분야 1677억원, 복지·보건 분야 2919억원, 안전·환경 분야 319억원, 문화·관광 분야 183억원 등이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식

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HMR)활성화 지원사업(4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10억원) △동산동 유전도서관 건립(15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15억원) 등의 정부예산이 확보됐다.

계속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209억원)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67억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78억원) △홀로그래프톤트 서비스센터 구축(40억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110억원) 환경강심타지구(물문화관) 하천정비사업(50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 7월 '재민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

원사업(110억원)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시는 하반기에 확정되는 대형사업이 남아있어 국가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총 사업비 3500억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노려볼만하며 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응모한 △도시재생뉴딜사업(3개사업 총사업비 500억원)도 이달 중 최종 발표가 예고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만 반영된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총사업비 210억원) △남산~연무C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총사업비 1,886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총사업비 5011억원)에 대해서도 국회단계에서 최대한 증액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도시숲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예산도 하반기에 확정된다.

이 같은 성과를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예산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며 올해부터 신설된 익산시 세종사무소를 통해 정부동향과 예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업부서와 공유한 부분도 한몫을 담당했다.

시는 이춘석(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부처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재부 예산심의 단계까지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전략회의를 통해 추진방향과 전략설정을 함께 고민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2020년 국가예산안은 3일 국회로 제출돼 각 심의위와 여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익산=장민천 기자



익산경찰서는 최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정성(精誠)을 다해 무료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한 자문변호사들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익산署, 자문변호사들에 감사장 전달

시민들에게 민사 및 형사상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최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정성(精誠)을 다해 무료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한 자문변호사들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익산서 수사민원상담센터는 올해 4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20명의 변호사들이 익산시민들에게 민사 및 형사상 전문적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상담센터는 1층 경제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5시까지 변호사들이 상주하여 상담하고 있으므로 역할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민원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경비교통 등 다양한 경찰 민원업무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상담센터 운영성과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단순 민사사안에 불과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사건을 줄이는 민사 반려율은 10%가 증가하면서 경찰 수사력이 더욱 집중되어 기소외견 송치율(경찰에서 입건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6%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상담을 통해 단순 민사사안으로 인한 경찰 수사력 낭비를 막으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의 정확성이 높아진 의미라 할 수 있다.

감사장을 수여한 자문변호사 육현창 등도 "평소 익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찰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운영되어 익산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낌없이 협조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하수처리장 감량화사업, 1석2조 기대

2021년까지 268억원 투입, 시설 전면 개선

익산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감량화사업이 노후 설비교체를 통한 악취개선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등으로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수도사업단(단장 김홍조)은 3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25년이 경과한 금강동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장 감량화사업을 추진해 노후 설비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악취를 방지하고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줄여 위탁처리비를 절감하는 한편 바이오 가스를 판매해 연간 1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감량화사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68억원(국비

188억원(70%)·도비 40억원(15%)·금강수계기금 9억원(3.5%)·시비 31억원(11.5%))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금강동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한 시설이 증설되고 노후된 설비는 고성능의 최신시설로 교체될 예정이다. 특히 대용량 탈취기(600m³/min) 1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고농도 악취 발생시설을 전부 지하에 설치해 악취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후로 인해 사용이 중지된 가스저장조 1기를 교체 신설

하고 악취 원인이 되는 황화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 탈황설비를 2중으로 설치해 황화수소 농도 2000ppm을 20ppm이하로 낮추는 등 각종 악취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감량화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전량 음식물처리업체에 판매해 가스로 인한 악취를 없애고 가스 판매로 연간 7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수처리장 발생량도 일일 68톤에서 57톤으로 11톤이 줄어들어 연간 5억원 정도의 위탁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번 시설 개선으로 매년 1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익산=장민천 기자·장양원 기자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군산시, 생명사랑 캠페인

건강도시 군산시가 소중한 생명 존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 보건소는 제16회 세계 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 10일)을 맞아 오는 10일까지의 기간을 생명사랑주간으로 정해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설시장, 대야5일장, 은파호수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캠페인과 이동상담을 진행해 군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서를 순회하며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현장 수습 후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교대근무로 인한 불면증 등의 위험에 놓인 소방대원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소방대원들은 군산시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지킴이는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대상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교육받은 사람이다.

군산시보건소는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발의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관내 축사 인접지역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21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 내에서 축사 신·증축 시 제출되는 거주세대의 주민동의 문구 삭제로 인한 주민동의서로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축사

인접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축사 신·증축 시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을 고려해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라고 명시된 사안을 '지역으로 인근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청렴교육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등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총 46개의 조례 및 승인 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특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44억이 증가한 1조4125억으로,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고령층 복리 증대와 재해위험시설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의결했다. 또한,

운영소 의원이 발의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관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이 가결됐다.

한편, 2차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시 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를 주제로 교육을 가졌다.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및 청렴 리더십 향상,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이주현 사무관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 및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해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